

격 려 사

천 년 고찰 6교구 본사 마곡사의
역사와 전통, 지혜를 등불삼아 모든
이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부대중
공동체 실현을 원력으로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고 계신 주지스님
이하 사부대중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불교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대전과 충청의
각 지역 사암연합회 스님들과 신도
여러분들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17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한국불교는 지금 매우 중요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종단 내외에 엄존하는 많은 도전과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잘못된 관행과 낡은 틀을 과감히 벗고, ‘자성과 쇄신’의 기운을 통해 종단의 자주성과 교권을 새롭게 확립하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1월 26일 담화문을 통해, 한국불교가 오늘날 처한 현실은 결국 우리 스스로의 허물에서 기인함을 깊이 자각하고, 국민과 함께 하는

불교, 사회와 함께 하는 불교, 시대 정신을 부여안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한국불교를 세우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성과 쇄신을 통해 60여 년 전 ‘봉암사 결사’ 이후 한국 불교사에 남을만한 획기적 전환의 계기가 되는 ‘결사’의 정신으로 ‘자성과 쇄신 결사’를 제안하였습니다.

자성과 쇄신 결사 제안 이후 종정 예하를 비롯하여 원로대덕 스님, 그리고 종단의 많은 스님들이 공감의 뜻을 표하며, 동참의사를 밝혀주셨습니다.

또한 사회와 이웃 종교에서도 한국불교의 변화를 위한 몸짓에 적지 않은 관심을 보여 주셨습니다.

저의 ‘자성과 쇄신 결사’ 제안은 총무원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의식과 평소 종도로서 가지고 있던 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하여 한국불교와 조계종단이 사부대중을 소중히 여기고 국민과 사회를 향해 의미있는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우리 모두가 함께 축하하는

순간이 오도록 혼신을 다하겠습니다.

사부대중 여러분!

수 천 년을 이어온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는 우리의 삶과 숨결이 묻어 있는 뿌리입니다. 또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는 민족의 정신입니다. 이러한 소중한 역사적, 국가적 자산을 보호하고 계승 발전시켜야 할 일차적 책임은 국가에 있습니다. 그러나 1700년 동안 온갖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불구하고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켜온 우리 불교계를 상대로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한 행위를
일삼아 온 것은 국가적 책임의 방기
이며, 민족정신마저 왜곡하는 행위입니다.**

**헌 정권 출범 이후 끊임없이 제기
됐던 종교차별 행위 역시 마찬가지입
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례를 일일이
열거할 필요도 없습니다. 개신교인들이
동화사, 봉은사를 비롯해 사찰을
방문하여 기도하는 ‘사찰 땅밟기’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목사와 장로들이 한국불교 총본산인**

**조계사에까지 난입해 불교를 비방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는 한국불교가 처한 오늘의
현실을 바로 보아야 합니다.**

**출가 수행자로서 청정승가로서 위의를
갖추고 있는지, 깨달음을 구하기 위한
수행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중생구제,
전법교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해오고
있는지, 민족전통 문화의 전승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 불제자로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남이 없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구해야
합니다.**

**결사는 근본을 바꾸는 의지이자,
노력이며 희생입니다. 정부 여당의
사찰 출입을 막거나 예산 신청을
하지 않는다는 선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성찰하고 쇄신하고자
하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결사는 누가 만들어주는 지침이
아닙니다. 종단 지도부가 결의와
결단을 통해 결사를 선언했다면 현장**

에서 실천하는 방안을 만들고 실천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지금 당장 눈앞의 어려움을 모면하고자 한다면 전통문화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을 바로 잡을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불교가 국민들에게 정신적 귀의처로서 신뢰와 존경을 이끌어 낼 수 없음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사부대중 여러분!

우리 삶에 습관처럼 길들여진 부정적 관행과 타성을 자성합시다.

한국불교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

**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쇄신합시다. 그리고 결사의 정신으로
쉽 없이 정진합시다.**

**우리는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한
오랜 전통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1700년 역사와 전통이 이를 증명하고
있고 가깝게는 60여 년 전 봉암사
결사와 1994년 종단 개혁을 통해서도
확인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한국불교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지금 비록 조금은 어렵고 더디더라도
1700년 한국불교의 오늘과 내일이
부끄럽지 않고 국민 모두에게 희망과
행복을 안겨줄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정진하고, 발원합시다. 감사합니다.**

불기2554년 3월 3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